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Department of Earth System Sciences

## 지구시스템과학과 소식

N NEWS



2020  
[geo.yonsei.ac.kr](http://geo.yonsei.ac.kr)



#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소식지

## Contents

<b>01. 학과장 인사</b>	03p
한원식 학과장	
<b>02. 기고문</b>	04p
문희수 명예교수	
원종선 교수	05p
<b>03. 원우회장 및 학부대표 소개</b>	
이기환(2019 원우회장)	06p
김태훈(2020 원우회장)	06p
이훈섭(2019 학부대표)	07p
김도영(2020 학부대표)	07p
<b>04. 2019 지구시스템과학과 소식</b>	08p
<b>05. 신임교수 소개</b>	
이창열 교수	13p
김원석 교수	15p
<b>06. 연구실 소개</b>	16p
<b>07. 대학원생 소개</b>	
심호(광물학연구실)	18p
이지수(환경지구화학연구실)	19p
<b>08. 학부생 소개</b>	
전현정(15학번)	20p
심희연(16학번)	21p
<b>09. 지구시스템과학과 동문 소식</b>	22p
<b>10. 동문 기고문</b>	
이철규 동문(95학번)	24p
백조현 동문(12학번)	26p
<b>11. 학과 동문장학기금 안내</b>	28p



학과장 인사

2020

## 지구시스템과학과 소식지를 발간하며

•  
학과장  
**한원식** 교수



가장 먼저 “지구시스템과학과의 소식지”가 2020년에 다시금 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학부/대학원생 여러분, 그리고 동문 선·후배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지를 통해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현황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동문선·후배님들에게 전달하고, 나아가 우리 구성원들이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더욱 분발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바램은, 앞으로도 지구시스템과학과 소식지가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우리 지구시스템과학과 구성원의 소통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한해, 우리 지구시스템과학과는 선·후배님들과 재학생들과의 교감의 창구로서 내실을 다지려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지질학의 발전을 주도하는 위상을 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학과의 1기 졸업생 선배님들을 모시는 재상봉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의 지구시스템과학과 기틀과 초석을 마련해주신 선배님들의 모교 방문으로 학과의 전통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과거 선배님들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보고하고 후배님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 학과의 얼굴인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재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의 역할을 다시금 정비하였으며, 새롭게 학과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우리 과의 비전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우리 지구시스템과학과가 선진 연구와 교육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 유연한 사고와 기본에 충실한 교육의 요람

• 문희수 명예교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여러 생명체의 기원이자 터전이며, 작은 둘 하나에서부터 거대한 산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는 변화하는 지구와 그 속의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적 요람임과 동시에, 함께하는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이 상호 교류하며 대한민국 지구과학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는 1965년에 창설된 이래 역동의 반세기를 보내며 대한민국 지질학계의 선두주자로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사고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자유로운 연세대학교의 학풍과 더불어 교수, 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의 함께 기울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간 지구과학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우리 동문들은 나아가 사회 여러분, 각계 각층에서 독창적이고 뛰어난 역량을 기반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둘 하나도 신중히 살펴보며, 그 안에 숨어있는 자연의 지식과 지구의 역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함구하는 진실을 찾는 작업은 과학적인 접근법으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설령 해답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의문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제기되는 의문들을 끊임없이 해결하기 위해 지구과학도들에게는 열정과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과 집념이 비로소 과학적 탐구의 속성이자, 한 발 앞으로 진전할 수 있는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학창 생활을 보내며 조금은 느긋하며 조금은 자유스러운 연세대학교의 학풍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연세대학교 특유의 분위기와 자세에서 비롯된 사고의 유연성은 많은 선임 지구과학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창의성의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본질에 대한 탐구의 시작은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관찰에서 비롯되지만, 본질에 대한 해답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문적 이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학문적 이해의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교육입니다. 특히,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지구과학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가 접하는 모든 학문 분야와 사회 현상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신출내기 지질학도로서 그리고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의 주축으로서 여러분들은 앞선 선배님들이 마련해놓은 단단한 토대 위에서 지구과학의 미래를 견인하는 선구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는 창과 이후 유연한 사고와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이념으로 지구과학도를 양성하는 학문적 요람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구시스템과학과의 역사적 기틀을 마련하신 선임 교수님들과 동문선배님들의 업적을 기억하며, 초창기의 건학 이념과 교육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그 결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뒤이어 후학들은 학과의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바를 고민해야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난 기간 이룩한 것보다 더 많은 발전을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동문으로 살아가는 법

• 원중선 교수



지난 수년간 교편을 들며 느꼈던 점은, 연세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교수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들이 수학하는 대한민국 학문의 성지이라는 점이다. 모든 연세인의 사상과 행동은 그야말로 개개인의 자유가 최우선 된다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자유로운 영혼의 연세인이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문득 아쉽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타 대학 출신 졸업생들은 사회에서 리더를 중심으로 뭉쳐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 돋는 가운데 대업(大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반면, 우리 연세인들에게는 동문선후배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아름다운(?) 풍경을 사회에서 기대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게 현실이기에, 잘 뭉치는 타 대학 출신들을 볼 때면 부러움을 느끼곤 한다.

그리면 과연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동문으로서 사회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도 좀 더 뜰뜰 뭉쳐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위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2차 대전에서 미국이 독일을 이긴 이유는 전쟁에 필요한 석유와 인력의 무한정 보급과 지원 때문이다. 하지만, 벌지 전투와 같은 개별 전투에서 미국이 승리한 이유는 단연코 군수보급의 성공 때문만은 아니다. 생각해 보자. 한 명의 지휘관 아래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 정예화된 독일군에 비해 복장도 엉망이고 군기도 부족해 보이는, 심지어 자유분방해 보이기 까지 한 미군이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미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훈련소에서 교본으로 배운 지식이 아닌 전장에서 몸으로 배운 새로운 각자의 방식대로 싸웠기 때문이다. 지휘관이 전사하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독일군에

비해, 미군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른 전우가 전사한 지휘관을 대체하여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 맞춰 전투를 수행하여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단언컨대, 우리 연세인들은 너무나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이다. 우리가 주어진 틀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대열을 지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과거에도 또한 앞으로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를 강요하다 보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 보다는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즉, 각자가 터득한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연세인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 개개인의 동기부여가 있는지 여부이다. 동기부여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않은 상황에서는 오합지졸에 불과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또한 지구시스템과학과의 변창이 우리 모든 구성원 삶에 큰 결실이 된다는 동기가 확실하게 부여될 때, 그리고 목표는 주어지나 방법은 각자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연세의 자유로운 영혼들은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새롭게 사회로 나가는 동문들이여! 이 사회는 꿈과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니라 어둡고 힘들고 세찬 비바람도 함께 한다. 그러나 각자가 잘 되는 것이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가 잘 되는 것이며, 또한 지구시스템과학과가 잘 되는 것이 모든 구성원의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비록 현실 세계에서 동문들의 눈에 보이는 도움은 크지 않더라도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묵묵히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 원우회장 및 학부대표 소개

### 2019 원우회장 이기환



안녕하십니까, 2019년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원우회 대표를 맡게 된 이기환입니다.

먼저, 2019년 동안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 학과사무실, 원우 및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2019년에는 재상봉 행사, 소식지 제작, 학교 차원에서의 과 흥보 영상 촬영 등 여러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 전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끝내지 못할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일을 맡으시고, 하나하나 직접 지도해주신 한원식 학과장님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업으로 바쁠 와중에도 열심히 참여를 한 이훈섭 학부생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1년동안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 새로 선출될 원우회대표 또한 작년처럼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여름은 뜨겁고 겨울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던 따스한 해였습니다. 다들 열정적으로 지내신만큼 큰 수확을 거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은 따스한 일들만 기득하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 원우회장 김태훈

안녕하세요. 2020년도 새로이 지구시스템과학과의 원우회 대표를 맡은 김태훈입니다. 전통적으로 전공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끈끈한 저희 지구시스템과학과의 원우회 대표를 맡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도에 훌륭하신 학과장님을 비롯하여 학과대표, 그리고 전 원우회 대표께서 노력해주신 덕에 한층 발전하고 변화하는 저희 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저 또한 저희 학과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과 구성원들 간의 소통, 참여와 노력의 산물인 이번 소식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학과인 저희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이처럼 모두가 참여하고, 새로운 소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다가온 2020년, 새로이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의 새해 다짐과 소원,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 학부대표 이훈섭

지구시스템과학과 학부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지구시스템과학과 학생회 <CHEERS> 학생회장 이훈섭입니다. 저희 학생회는 서로 소통하는 학생회라는 모토를 달고 올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 학부생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많은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보다 나은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셨던 관심과 애정, 또한 도움의 손길 덕분에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다음대 학생회를 뒤에서 응원하고자 합니다. 1년 동안 학생회 <CHEERS>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 학부대표 김도영



안녕하십니까 지구시스템과학과 학우 여러분, 2020년도 지구시스템과학과 학생회 < CURIOSITY >회장단 김도영, 박세창입니다. 우선 정말 많은 학우분이 투표해주시고, 찬성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당선까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믿음을 져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학생회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항상 수렴하도록 노력하는 열린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과 학생회 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과 홈페이지 새 단장 2019. 2

지구시스템과학과 홈페이지  
(<http://geo.yonsei.ac.kr/>)가  
개편되었다.



## 지구시스템과학과 학부- 대학원생 연구교류 행사 2019. 5. 11

2019년 5월 11일, 『지구시스템과학과 학부-대학원생 연구교류 행사』가 개최되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발표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보냈다.



## 퇴적암석학 실습 2019. 6. 1 ~ 6. 2

2019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19학년도 1학기 퇴적암석학 과목의 야외실습이 진행되었다. 이번 실습은 강원도 영월군, 정선읍, 태백시, 강릉시 일대에서 진행되었고, 학부생 33명이 참여하였다.



## 야외지질학 실습 2019. 11. 16 ~ 11. 17

2019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19학년도 2학기 야외지질학 및 실습 과목의 야외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는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동점역 ~ 구문소교 주변 및 사북을 강원랜드 주차장 인근에서 이루어졌으며 학부생 28명이 참여하였다.



## 2018학년도 2학기 (최)우등, 우수학생 시상

2019. 5. 20

2019년 5월 20일, 지구시스템과학과 2018학년도 2학기 (최)우등, 우수학생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시상자는 2018학년도 2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부 재학생으로, 우등생 1명(김정원), 우수생 5명(송정욱, 강유진, 허광희, 한정연, 강교선) 총 6명에게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되었다.



##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동문회 2019년 정기총회

2019. 6. 22

2019년 6월 22일, 학과 동문회 2019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 재상봉 행사

2019. 5. 11

2019년 5월 11일, 『2019 재상봉 행사』가 개최되었다. 학부 졸업 25주년·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재상봉 행사에서는, 1기 졸업생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면서 동문 상호간의 유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2019 필드캠프

2019. 6. 24 ~ 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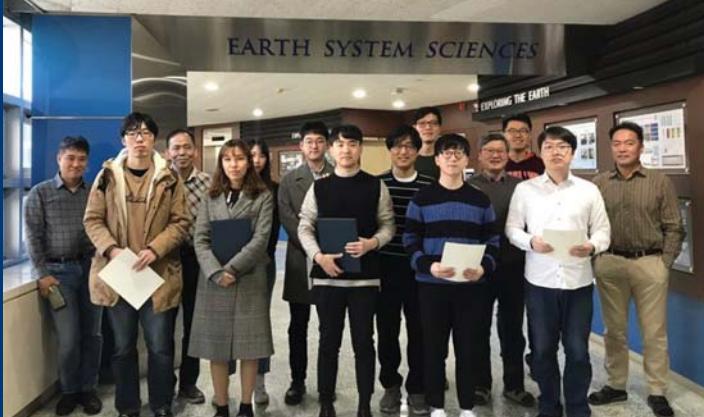
2019년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11박 12일 동안 2019년 여름방학 필드캠프가 진행되었다. 이번 필드캠프가 진행된 장소는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일대로 학부생 12명이 참여하였다.



## 극지연구소 견학

2019. 11. 26

2019년 11월 26일 환경지구과학개론 및 실습수업의 일환으로 학부생 26명이 극지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 2019학년도 2학기 (최)우등, 우수학생시상 2019. 12. 2

2019년 12월 2일, 지구시스템과학과 2019학년도 1학기 (최)우등, 우수학생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수상자는 2019학년도 1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부 재학생으로, 최우등 2명(양우종, 박슬빈), 우등생 2명(한정연, 정원우), 우수생 9명(신정우, 하경원, 김대일, 허광희, 배의균, 정동찬, 김한솔, 경희창, 김민찬) 총 13명에게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되었다.

## 지구시스템과학과 총동문회

2019. 12. 13

2019학년도 지구시스템과학과 총동문회가 지난 12월 13일 동문 송년회관 5층 소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 지구시스템과학과 학술총회 2019.12.20

2019년도 지구시스템과학과 학술총회가 12월 20일 금요일 연세대학교 과학관 111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총회에서는 학과 현황 보고, 신임 포닥 연구원 소개, 학위 졸업예정자 발표, 외부연사 및 신임교수님 특강, 경품추첨, 대학원생 설문조사 코너, 학부생 설문조사 코너, 포스터 심사 및 시상식, 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신임 포닥 연구원 3명과 학위 졸업예정자 대표 3명이 각자 연구에 대한 간략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연사 특강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창원 이사님의 직업시장에서의 지구시스템과의 장점에 대한 세미나 시간과 새로 부임하신 이창열, 김원석 교수님께서 연구에 관해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설문조사 시간에는 교수님들과 학우에게 대학원생들의 진심을 전하는 시간을 진행하였다. 학술총회 도중에 학부 졸업논문 포스터 심사가 있었는데, 심화현 학우가 최우수상을 받아 경품인 아이패드와 함께 시상을 받았다. 경품 시간에는 샤프, 가방, USB, 무선청소기, 에어프라이어, 아이팟 등 다양한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어 다들 즐겁게 참여하였다.



1

### 오리엔테이션

(2019. 2. 7 ~ 12)

19학번 새내기들을 위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을 4일간 진행하였다. 새내기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서로 친분을 쌓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연세대학교 응원가 연습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 해오름제

(2019. 3. 21)

21일에 이과대학 그린광장에서 해오름제를 진행하였다. 해오름제는 매년 하는 행사로 전을 부쳐서 먹으면서 서로 친해지는 행사이다.

### 아카라카

(2019. 5. 17)

아카라카는 연세대학교 연례행사 중 학생들이 많이 기대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아카라카의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행사에 초대되어 학생들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2

### 새내기 배움터

(2019. 2. 22 ~ 24)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간 제천에 위치한 시립제천시청소년수련원에서 새내기 배움터를 진행하였다. 새내기배움터에서 새내기들과 선배들은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이과대학 동아리 공연등을 통해 단과대 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었다.

3

### 합동응원전

(2019. 4. 12)

본래 3월 15일에 예정되어있었던 합동응원전이 우천으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4월 12일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다시 진행되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양교 학생들이 서로 응원을 같이 하였고, 우리과는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류반과 함께 뒷풀이를 진행하였다.

### 대동제

(2019. 5. 22 ~ 24)

대동제는 연세대학교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대동제 기간 동안 여러 동아리의 공연과 주점으로 행사를 꾸몄고, 학생들은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행사이다.



5



6



### 합동응원전

(2019. 9. 4)

9월 4일에는 2학기 정기 합동응원전이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 서문전

(2019. 9. 19 ~ 20)

서문전은 올해 처음 실시된 행사로 작년까지 진행되었던 이과대학 축제 경천제를 키워 서문 주위에 위치한 4개의 단과대학(이과대, 신과대, 생과대, 생명대)이 모여서 서문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연합 축제를 진행하였다. 운동회와 e-sport 대회 등 많은 대회를 진행하였고, 최종 이과대학이 우승하였다.

5

### 연고전

(2019. 9. 6 ~ 7)

6일과 7일 이틀동안 연고전이 진행되었다. 첫날인 6일에는 야구, 농구, 빙구 세 종목이 진행되었으며, 야구와 빙구에서 연세대학교가 승리하면서 2:1로 마쳤으며, 둘쨋날인 7일에는 우천으로 인해 축구와 럭비가 취소되어 최종 2:1로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

### 학부생 MT

(2019. 10. 3 ~ 4)

1박 2일 일정으로 지구시스템과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MT를 진행하였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아트시티펜션에서 진행하였으며,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선후배 간의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 과간식행사

(2019. 10. 16 ~ 17)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16일은 신촌, 17일은 송도에서 과간식행사를 준비하였다. 간식 메뉴는 햄버거와 콜라였으며 중간고사 기간에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자 준비하였다.

6

### 지템 일일호프

(2019. 11. 29)

29일 지구시스템과학과 물리학과의 새내기 연합 일일호프를 진행하였다. 장소는 신촌 버글버글에서 진행되었으며, 하루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소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 이창열 교수

### 1 /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여러분. 저는 2019년 3월에 새로 부임한 이창열입니다. 지난 동문회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놀랍게도 (?)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99학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의 임용에 놀라셨다고 들었고 심지어는 저조차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연세대학교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학풍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낸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바쁘게 지내왔지만, 동료 교수님들의 보살핌과 가르침, 그리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원생 및 학부생의 성원으로 보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구시스템과학과의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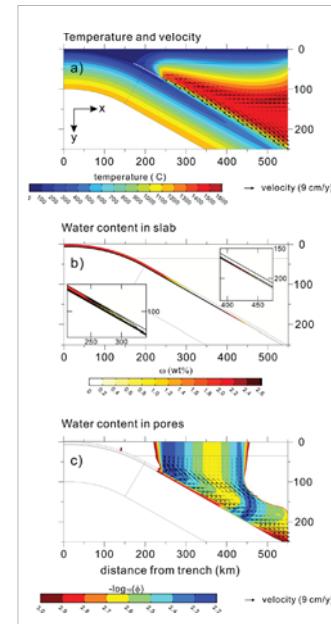
- 이학학사(2004.02)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 이학박사(2010.12) 버지니아주립공과대학교(Virginia Tech) 지구과학과(Department of Geosciences)
- 박사후연구원(2011.01-2012.02)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 조교수, 부교수(2012.03-2019.02)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 2 / 교수님 연구 분야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컴퓨터 수치모델링을 이용한 지구동력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전문 용어로는 전산지구동력학(Computational Geodynamics)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의 진화는 크게 보면 지구가 형성될 때 축적된 열에너지, 방사성 동위 원소 붕괴에 의해 계속 생성되어온 열에너지 그리고 태양 등으로 유입되는 에너지의 순환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지질 현상이 해양판이 맨틀 속으로 침강하는 섭입 작용입니다. 섭입 작용이 일어나는 섭입대는 1980년 폭발을 일으킨 미국의 세인트 헬렌 화산 같은 호화산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처럼 거대 지진이 발생하는 곳으로써 우리 삶과 밀접합니다. 저는 학문 및 실용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섭입대 호화산(arc volcano)의 생성 과정을 컴퓨터 수치모델링을 이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 지역은 동북일본 섭입대의 호화산인데 저는 한번도 그 지역을 직접 조사한 적이 없으며 아마도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지역에 직접 간다고 한들, 깊은 맨틀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서 직접 탐사해서 알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지역을 연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구물리학 및 지구화학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들을 수치모델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해양판이 중앙해령에서 생성된 이후 바닷물에 의해 생성된 함수 광물들이 맨틀로 침강하면서 탈수되는 과정을 계산함으로써 호화산을 형성시키는 물이 어떻게, 얼마나 맨틀로 유입되는지 정량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수되고 남은 해양판 속의 물이 깊은 맨틀 속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백두산과 철원 지역의 용암대지처럼 한반도에서 발

견되는 화산의 생성 원인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다음 개척지인 화성의 맨틀 대류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전산지구동력학은 우리가 직접 탐사할 수 없는 지구 내부뿐만 아니라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의 진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실에는 석사 과정 1명과 3명의 학부 인턴이 참여하고 있으며 점점 식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림 설명: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면서 섭입해양판에 포함된 함수 광물이 붕괴되어 탈수가 일어나는 과정을 계산한 컴퓨터 수치모델링. 그림 a)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뜨거운 맨틀과 만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한다. b) 온도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섭입해양판의 물이 탈수되어 해양판 내부의 물의 양이 감소한다. c) 섭입해양판에서 탈수된 물이 맨틀로 유입되어 상승한다.





## 3 / 교수로써 학과 강단에 서 보신 느낌을 알려주세요.

전 이미 다년간 강의를 해본 경험이 있어 처음에는 강의가 그다지 새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게 다른 점이 있었는데 말씀 드리자면 학생들에게서 무척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질문들 중에서 저를 난처하게 만든 질문도 여럿 있어 진땀을 흘렸던 기억도 납니다. 수업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긴장을 하게 되는 이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았습니다. 그 만큼 제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학기에 강단에 선지 8년 만에 ‘행성과학’을 학부생 대상으로 처음 개설하였습니다. 행성과학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내행성의 생성과

진화를 다루는 강의로 지구화학/지구물리학/구조지질학 등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한 2학년 학생들이 여럿 있어 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강의를 마친 이후 제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누구보다도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으로써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림 설명: 행성과학 강좌 기말 시험 전 질문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학부생들과 함께

## 4 / 향후 계획과 비전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음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전 우리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호화산 연구를 계속 수행하여 동북일본 뿐만 아닌 여러 섭입대에서 발견되는 호화산의 형성과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에 분포하고 있는 판내부 화산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행성을 중 오직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지질 현상인 섭입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지구의 유일성을 이해하는 과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둘째, 우리 인류의 다음 개척지인 화성이 왜 지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지 맨틀의 진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이해하고자 합니다. 아마 저는 화성에 갈 수 없겠지만 우리 후손들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전에 제가 화성에 대한 인류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공헌하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 교수님, 학생, 동문 여러분이 모두 각자의 꿈을 이루는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통해 배움으로써 서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또한 학과 교수님과 화합하고 학과에 봉사하여 우리 지구시스템과학과가 더욱 발전하는데 작은 역할이나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이러한 꿈들을 현실로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성원과 채찍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세, 미래로 향한 길로 나아갑시다. Yonsei, Leading the Way to the Future!

## 김원석 교수

### 1 /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94학번으로 입학하여 동대학원 석사 후 유학 길에 올랐습니다. 박사는 미 북부의 아주 추운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4년 반 만에 받고 조금 남쪽인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2년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학교에서 강사하게도 초청해 주셔서 인터뷰를 본 후 텍사스 주립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2009년 임용된 이후 부교수로 승진하여 테뉴어(정년보장)를 받고 10년간 교수로 제직하였습니다. 2019년 가을학기에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로 초빙되어 현재 퇴적형태 및 층서역학 연구실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 2 / 교수님 연구 분야에 대해 알려주세요.

퇴적형태 및 층서역학은 본래 미국에서 쓰던 제 연구실 이름, morphodynamics and quantitative stratigraphy를 우리말로 바꾼 것입니다. 아직 제 입에도 잘 불질 안네요. 그러니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거라 생각합니다. 유체, 물 또는 공기의 흐름은 퇴적물을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지형 형태의 변화가 층서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지질학자들은 특별히 퇴적 또는 층서학자들은 이런 지질학적 기록을 보고 예전 지구의 고환경을 분석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종전에는 지질학자들이 퇴적 기록만을 보고 고환경을 어렵게 분석하였으나 유체에 의한 퇴적물 이동과 지형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 형태의 변화 프로세스를 알아야 고환경 분석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지형

형태의 변화와 층서의 연결 고리를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내 수조장치를 이용하여 지표형태 변화를 측정하고 이해하며 이에 따른 퇴적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은 과학원 3층과 지하 3층에 위치할 예정이며 현재 (2019년 가을학기)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퇴적이동을 모사하고 그 층서 기록들을 확인하는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조실험에서 물리적으로 보여진 현상들을 자연계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순수퇴적층서 연구뿐 아니라, 석유자원개발, 온난화에 따른 지구지형변화 예측, 흉수, 지진 해일(쓰나미),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퇴적물 이동과 피해 등 또한 저희 연구실이 수행하는 연구 주제들입니다.

### 3 / 교수로써 학과 강단에 서 보신 느낌을 알려주세요.

학기말, 저는 하루 날을 잡아 아주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 입고 강의실에 갑니다. 그날은 수업보다는 제 인생이야기를 하려 갑니다. 유학, 진로, 성공과 실패, 가족, 그리고 신앙, 한 학기 내내 수업 듣고 쫓아오느라 수고한 학생들 격려도 할겸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터놓고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끝나고 강의실 앞쪽, 제 앞에 줄을 섭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악수를 청하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아픈 곳을 짧지만 나누어 주는 친구들도 있

었습니다. 강단에 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이럴 때 보람이 있고, 더 힘을 내게 됩니다.



### 4 / 향후 계획과 비전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인터뷰를 받는 중, 원종선 교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마도 한국에 오면 전과 다르게 연구 환경이 좋지 않아, 전과 같은 좋은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저보다 훌륭한 후배를 키우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

고 이제 제 계획과 목표를 훌륭한 후배들을 키우는데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세계적인 연구 성과들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연구 경험을 쌓으며, 훈련을 잘 받아 자라나 세계적인 석학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연구실 소개



### 구조지질 및 지구조 연구실

구조지질학은 암석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규모의 구조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구조지질 및 지구조 연구실에서는 야외 지질조사, 실험, 박편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지역에 대한 구조기하학적 형태 해석 및 운동학적, 역학적 특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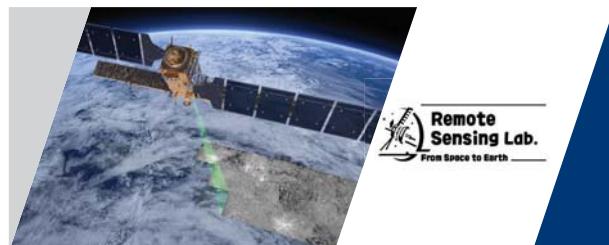
### 퇴적지형 및 층서역학 연구실

퇴적지형 및 층서역학 연구실은 퇴적물 이동 과정 중 지표지형 변화와 이에 따른 층서적 반응이 퇴적 분지의 경계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조실험 및 층서 패턴의 이론적 모델 제시와 컴퓨터를 이용한 지형과 층서변화 예측을 통해, 기존 자료로 접근할 수 없었던 퇴적 시스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 지질유체역학연구실

지질유체역학연구실은 CO<sub>2</sub> 지중저장, 지중환경내 오염물질 거동 예측, 단층 수리지질역학 등과 관련한 지질 매체내 유체의 유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치해석학적 접근방법으로부터 현장적용까지 연구방법을 다양하게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지질학적 자연현상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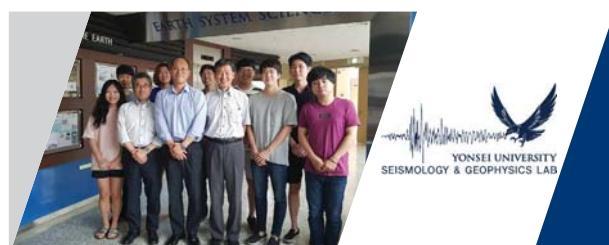
### 원격탐사연구실

원격탐사 연구실에서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지구의 표면 및 지하 천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탐지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주로 위성 합성개구레이더(SAR), 광학 및 열적외선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면 정밀 변위 측정, 이동물체 탐지, 지표면 온도 파악, 반사도 측정 등의 연구를 수행합니다.



### 광물학연구실

광물학 연구실은 광물을 기저로 한 광물화학, 광상학, 점토광물학을 비롯하여 멀리는 암석학과 퇴적학 관련 연구까지 폭넓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최근 과학계의 주제에 맞춰 의학 계열이나 컴퓨터 모델링, AI 등 공학 계열의 타분야 기반의 융합 연구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지진학 및 지구물리학 연구실

지진 자료를 포함한 여러 물리 자료를 이용하여 지구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을 물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을 연구하며, 지진 이외에도 배경 잡음 자료로 지각의 구조를 파악한다. 이외에도 화산 활동, 핵실험, 기상 현상, 행성 지진학 등의 주제로 연구한다.

## 연구실 소개



### 결정학 연구실

결정학 연구실에서는 이용재 교수님과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들이 방사광가속기 선원 등을 활용한 첨단 물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앤빌셀이라는 소형 고압기를 이용하여 지구 및 행성 내부의 조건을 구현하고 물질의 상태 및 순환 등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고, 주요 과학저널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 생지구화학연구실

K-IODP, KIOST, KOPRI 탐사와 연계하여 지구상의 극한 지역 (극한환경인 남극, 엘로스톤, 심해저 열수분출공)에 대한 탐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를 통하여 ‘생물권의 한계의 확장’ 대한 지질학적인 요소의 영향 및 인류의 근본 질문인 “생명의 기원”에 대한 규명을 궁극적인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지하수 연구실

지하수 연구실에서는 자연적 ·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지하수 환경의 양적 · 질적 변화를 현장조사 · 시료채취 · 실내분석 · 통계 및 모델링 방법으로 연구하여,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지진 · 가뭄 등 자연재난의 감시와 예측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지구화학 연구실

환경지구화학 연구실에서는 지구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구환경 중 지표 및 지하수에서 인간과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원소들의 지화학적 반응을 해석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모사한 실내실험과 첨단 분석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지구동력학 연구실

지구동력학 연구실에서는 석입 작용과 이에 의한 결과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슬랩 좌굴, 풀룸-슬랩의 상호 작용 그리고 슬랩의 부분 용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은 석입 해양판의 탈수와 탈수된 유체가 호화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컴퓨터 수치모델링을 이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2월 2일

광물학 연구실  
박사 과정 **심호**



아침부터 워크스테이션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지난밤부터 누군가 계산을 걸어놓았을 것이다. 아침 댓바람부터 한숨을 몰아쉬고 케이스에 넣은 이어폰을 다시 꺼내 귀에 꽂는다. 출근길에 듣던 음악을 마저 들으며 잠시 높을 놓다가도 이내 정신을 부여잡고 어제 쓰다 만 논문 파일을 연다. Method 부분을 쓴던 중에 실험조건이 기억나지 않아 연구노트를 뒤지던 와중에 전화를 받고 급히 퇴근한 것 이 떠올랐다. 오후에는 랩미팅이 있으니 어떻게든 그때까지 모두 써놓아야 할 것이다. 딱히 뭔가를 내놓으라 마구 다그치는 사람도 없지만 그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다. 랩미팅은 좋은 평계일 뿐, 언제까지 무언가를 하겠다는 목표라도 정하지 않으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늘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결과물은 제법 좋았다. 석사과정부터 생각해 온 아이디어를 근 4년간 발전시켜왔고 마침내 끝을 보았으니까. 돌이켜보면 과정에서 무수한 도움을 받았다. 내가 글을 쓴다 하여 내가 첫 번째 저자인데, 글을 쓰면 쓸수록 중간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너무도 많다. 나누어진 부분마다 공동연구자가 없었으면 하기 힘들었을 연구였다. 또 그렇게 생각

하니 결과에 대한 자부심이 똑 하고 반토막이 나버린다. 이런 연구를 이렇게까지 일을 벌여서 해야 했냐는 생각부터 대체 이런 글을 쓴다고 누가 알아줄까 싶은 망상까지. 첫 해외 저널에 투고할 논문을 쓰는 동안 수많은 잡념들이 머릿속을 오고 간다. 때마침 워크스테이션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보니 계산이 끝난 모양이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판을 두들긴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연구를 하는 탓인지 교수님은 항상 바쁘셨다. 박사과정 말년부터 신입 석사과정 학생까지 항상 1대 1 티칭을 목표로 하시니 몸이 세 개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우리는 다들 언제나 그랬듯 서로를 다독이며 각자와 잘 싸우고 있었다. 덕분에 오늘 랩미팅은 나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갔다. 회의가 끝나니 피로가 한껏 물려온다. 나는 우리 연구실이 출퇴근을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만큼 하는 일터의 이상향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해가 중천이지만 퇴근하고 내일 다시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 Into the unknown

환경지구화학 연구실  
석사 과정 이지수



최근 <겨울왕국2>를 관람했다. 영화 속 얼음마법을 사용하는 엘사가 의문의 목소리를 쫓아 모험을 떠나는 모습에서 어쩐지 나의 대학원 생활이 자꾸만 떠올랐다.

나의 연구 주제는 얼음에서 일어나는 지화학반응이다. 일반적으로 화학반응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반응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얼음 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화학반응이 가능하다. 나를 비롯한 환경지구화학연구실의 여러 대학원생들은 이런 신기한 현상을 토대로 철/망간산화물과 같이 자연에서 여러 오염·영양원소의 거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광물들이 얼음 내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가는지 공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빙권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지구시스템과학과에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모인다. 그 중에서도 나는 ‘환경전문가’라는 막연한 꿈을 갖고 입학한 학생이었다. 이런 나에게 석사과정은 어렴풋이 그리던 미래를 구체화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해준 시기다. 관심분야를 일찍 찾고, 그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이 큰 행운으로 느껴져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의 모험에는 분명 순탄치 못한 순간들도 존재한다. 석사과정 초기에는 실험결과가 매번 다르게 나오는 바람에 똑같은 실험을 열 번 가까이 반복한 적도 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풀더라도 그 것이 정답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선행연구들을 논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학부와 대학원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다. 그럼에도 스스로 답을 만들어 나갈 때의 뿌듯함은, 설령 그 답이 엉터리일지라도, 큰 성취감을 안겨주며 또다시 부딪혀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어쩌면 나 또한 나만의 방식대로 얼음마법(?)을 이용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모험일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여정을 걸어 가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부딪혀 보려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우리 모험의 동료가 되고 싶다면 언제나 환영이다 :)



## 감사했던 학부 생활을 마치며...

15학번 학부생 **전현정**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지구시스템과학과의 15학번 학부생 전현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써 제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면서도 한 편으로는 많이 떨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5년, 떨리면서도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송도에서의 하루하루를 즐거움과 웃음 가득하게 보냈으며, 당시의 행복했던 시간들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동기들, 선배님들과 만나 거의 매일 (송도의 명물!) 디디치킨을 먹고 이곳저곳을 다니곤 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이렇게 졸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게 새삼 놀립니다. 사실 ‘그때 치킨을 덜 먹고 그 시간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아쉬움도 (생각보다 많이!) 들긴 하지만, 1학년 그 시절에만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 때를 생각하면 ‘정말 즐겁고 행복했지!’ 하며 웃음부터 나오기에 그 아쉬움은 조금 덜어지는 듯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흘러 어느새 2019년이 되었고, 저는 학부생으로서의 마지막 해를 보냈습니다. 작년 저의 가장 큰 목표였던 졸업이 확실시되고 이렇게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보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그간의 학부 생활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1학년 때와 같은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반면에 얻은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곳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학부생으로 약 5년간 지내며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공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배우게 된 것과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것도 크지만, 학부를 졸업하게 되는 이 때에 저의 5년이라는 시간을 가만히 들이켜보면,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제가 학부생활을 하며 얻어가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따스하게 품어주신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모자란 저를 이끌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여러 대학원생 선배님들, 언제나 반갑게 인사 나누어주고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던 모든 선배님들, 동기들, 후배님들... 감히 이 글을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들이 아니었다면 제 학부생활은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테고 이만큼 해내지도 못했을 것이기에, 이 글에 제 진심을 꼭꼭 눌러 담아 그간 정말 많이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베풀어주신 사랑과 따뜻한 마음들 모두 잊지 않고 평생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올 2020년 경자년은 ‘하얀 쥐의 해’라고 합니다.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하얀 쥐는 총명하고 부지런하며 지혜롭고 적응력이 뛰어나 난처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의 모든 분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2020년은 번영과 풍요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며, 또한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얀 쥐처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도 모두모두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의 4년

16학번 학부생 심희현



제가 지구시스템과학과에 입학한 후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송도에서 전공 수업을 처음 듣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고학년이 되어 많은 후배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조금은 신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우 분들이 다양한 길을 찾아 자신의 꿈과 목표를 펼치는 가운데, 저는 현재 학부생 인턴을 거쳐 본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이용재 교수님의 연구실인 고압광물물리화학 연구실(결정학 연구실)로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생각해오고 준비한 길이지만 1학년이나 2학년 때의 저라면 쉬이 상상하지 못할 진로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저는 이 학과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배우는, 지구라는 대단원에 둬인 방대한 전공과목들 사이에서 잘하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여러 부분에서 저보다 뛰어나신 학우 분들도 정말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 인데도 불구하고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던 것 같네요.

그럼에도 지구시스템과학과의 여러 학문을 배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학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 중 하나를 꼽자면 저희 과 과목들과 타 전공들 간의 연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현재 공부

하고 있는 결정학은 화학이나 신소재공학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고, 지진학이나 구조지질학은 컴퓨터공학이나 물리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과목 한 과목이 같은 범주에서도 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적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저희 과만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후배분들이 계시다면, 다양한 과목을 들어보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보거나 학부생 인턴을 신청해서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해 보는 것도 한 가지의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리고 20대의 나이에는 정말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학부 과정을 마치는 저도, 여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자 합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학우 분들께서도 본인이 만족하실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윤춘성동문(82학번) LG상사 대표이사 사장 취임

LG상사는 2018년 11월 27일 2019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하고 윤춘성 부사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윤 부사장은 연세대학교 및 동대학원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LG상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으며 석탄사업부장(상무), 인도네시아 지역총괄(전무) 및 자원부문장(부사장)을 맡아 왔다.

LG상사는 윤 부사장이 자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성공적인 투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 및 인프라 중심의 견고한 사업구조 구축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영주동문(82학번)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 사무총장 당선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원장 김복철)은 아·태 지역의 유일한 지질자원분야 국제 의사결정 기구인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사무총장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영주 박사가 당선됐다고 2019년 11월 26일 밝혔다.

CCOP사무총장 선거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14개 회원국 중 8개국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22일 이영주 박사가 당선됐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아·태 지역의 유일한 지질자원분야 국제 기구로서의 중요성을 감안, 외교부가 선거 과정에서 회원국 대상 지지교섭 등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영주 박사의 임기는 내년 4월부터 3년간이다.

이영주 박사는 2003년 CCOP 에너지자원 공동프로젝트인 석유자원 정책관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CCOP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석유해저자원 연구지식과 폭넓은 국제협력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국제협력 활동으로 CCOP 회원국과 협력국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왔다.

CCOP는 1966년 UN 산하기관으로 출발, 1987년부터 정부간 국제기구로 재편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14개 회원국의 에너지·광물자원 탐사·개발과 지질정보 DB구축 및 관리, 지질 재해 저감기술 개발 등 지구과학 분야 핵심이슈의 정보공유와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교류 협력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수행하고 있다.

## 김기범동문(90학번) 에누리써머스플랫폼 대표이사 취임



가격비교 사이트 '에누리 가격비교'를 운영하는 써머스플랫폼은 2019년 1월 23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로 김기범 현 전무(사업총괄 담당)를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기범 신임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생명 본사 CRM마케팅을 거쳐 이베이 코리아의 전략 기획팀장, 영업실장 및 마케팅 상무 등을 역임한 마케팅 및 이커머스 전문가로 지난 2014년 써머스플랫폼(구 에누리닷컴)에 합류했다.

지난 4년간 에누리 가격비교 사업 전반을 총괄해 BI개선, 서비스 리뉴얼 등을 통해 모바일 거래액을 40배 이상 신장시켜 가격비교 거래액 1조원 돌파를 이뤘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신규 사업 모델개발에 앞장서 회사 성장을 주도했다.

써머스플랫폼 관계자는 선임배경에 대해, "김 대표는 써머스플랫폼 입사 이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써머스플랫폼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기범 신임대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자상거래를 주도 할 만한 써머스플랫폼만의 장기적인 비전과 신사업 발굴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며, "사용자를 위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쇼핑·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가속화 하도록 전임 직원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민선동문(84학번) 지구시스템과학과 제17대 동문회장 선임

김민선동문이 2019년 3월 15일 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조영훈회장에 이어 제17대 동문회장에 선임되었다. 김민선동문은 1988년 2월 졸업후 2년4개월의 ROTC 군복무를 마치고 삼성물산건설부문, 에코솔루션을 거쳐 현재 포스코건설 인프라사업본부에서 환경영업그룹장직을 수행중에 있다.

김민선동문회장은 동문상호간의 친목도모, 상부상조를 통한 지구시스템과학과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문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 이윤수동문(76학번) 백두산 화산분화관련 국회포럼 및 국회컨퍼런스 개최

포항공대 환경공학과 특임교수로 재직중인 이윤수박사는 2019년 4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과기부와 통일부가 후원하고 심재권의원과 이상민의원이 주최한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어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백두산 화산연구,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관·학 국회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화산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백두산 화산의 남북 공동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구시스템과학과 동문회 정기총회 실시

2019년 6월 22일(토)에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과학관 B102호실에서 41분의 동문들이 모여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문회와 모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한 자리였습니다.



## 김복철동문(79학번, 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연기협 신임회장 선임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이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 협의회 (연기협) 제17대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

연기협은 2019년 10월 22일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김복철 신임 회장을 선임했다. 김 회장은 오는 12월부터 2년 동안 연기협을 이끌게 된다.

김 신임 회장은 연세대에서 지질학을 수학하고, 같은 대학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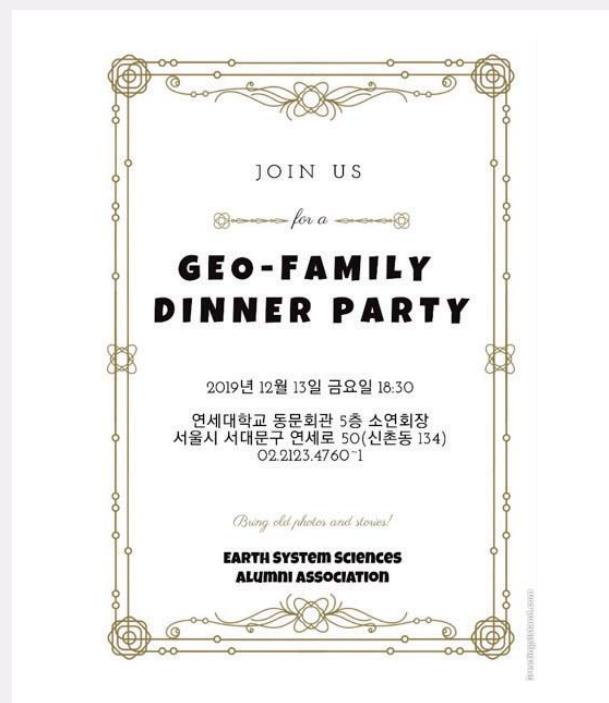
서 지질과학(퇴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자원환경지질 학회와 한국석유지질토적학회 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과 한국기술혁신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학·연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 과학기술 1번지 대덕특구가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력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기협은 1976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과학기술 전문기관의 교류 강화와 기관 발전을 위해 창립됐으며 현재 60여 개 기관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 지구시스템과학과 동문회 송년모임

2019년 12월 13일(금) 오후 6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5층 소연회장에서 송년모임을 개최하였다.





## 95학번 이철규 동문

## 1 / 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과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학과 소식지에 글을 쓰게 된 지구시스템과학과 졸업생 이철규입니다. 저는 수능 2세대로 1995년에 지질학과로 입학하였으나, 1996년 학과가 없어지고 학부재(자연과학부)를 거쳐 2001년에 지구시스템과학과로 졸업하는 격동(?)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후 송윤구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를 2003년에 마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때는 신세대 또는 X세대로 불리며 반항의 아이콘이었던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형적인 꼴대가 되어가고 있는 44살 직장인입니다.

2 / 職場: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이자  
낮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 포스코

저는 현재 철강회사인 포스코(POSC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 해아려 보니 포스코에서 근무한지 벌써 15년이나 되어가네요. 포스코 전에 잠시 일하던 직장까지 합하면 17년차 소위 '직딩'입니다. 먼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아래 회사 홈페이지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는 원료실(Raw Material Procurement & Investment Department)입니다. 원료실은 포스코 철강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철광석, 석탄 등)를 구매하거나 원료광산에 투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료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광산에 지분을 투자하고 협작회사를 관리하여 제철소에 투자한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호주에서 석탄을 생산 중인 광산(또는 탐사중인 광산)의 지분 10~20% 정도를 미리 사고 생산량의 10~20%를 제철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현재 포스코는 위의 기사와 같이 철광석, 석탄, 니켈 등 23개 광산에 약 6조 5천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렇게 투자한 광산에서 연간 철광석, 석탄 등을 연간 2천만톤 이상 제철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롤마진 압박 뛰어넘는 포스코**

3) 유비무원(有備無患) : 산세적 차원개발 투자는 원료가 상승할 수익성 감소분 상쇄

포스코는 경기적인 관점에서 예외 원료투자를 산세적으로 수진해온다. 대다수의 차원 투자국들은 외국 기업의 원료 투자기회를 저한할 뿐만 아니라, 원료 투자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원료시장은 시황의 변동이 빠르고 리스크가 있어, 원료투기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사들은 원가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수급을 위해 원료 투자에 밀을 준다. 원료가격이 철강 케조원가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 포스코는 현재 세계 11개국에서 탄소강 19만, 스텐얼리스강 4천 등 총 23건의 원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는 투자 광산의 평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기여해보는데, 그 결과 2018년 말 기준 투자비 회수율은 90%를 상회한다. 또한 최근 3년간 배당수익률을 포함한 원료투자수익금액은 연간 3점의 평균 광물과 원료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다.

(최근 3년 포스코 원료투자수익금액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3,200억 원	3,400억 원	1,600억 원

\* 배당수익, 원료법면 영업이익

〈포스코 원료투자 프로젝트 현황〉 (2018년 기준)



### 3 / 자원개발, High Risk & High Return

흔히 자원개발을 High Risk & High Return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고 합니다. 성공할 확률은 낮은 반면 일단 성공하면 소위 대박을 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원료의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막상 광산이 생산에 성공을 하더라도 그 당시의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위험한(?) 사업에 뛰어 들게 되었을까요? 처음 직무는 지질학자로 석탄 및 철광석 광산 탐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톤당 \$60 수준이던 철광석은 2011년 \$200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너도 나도 형도 아우도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 들게 되었고, 저도 뛰어 들었습니다. 2015년 원료 가격은 다시 반에 반 토막이나고 자원개발에 뛰어 들었던 형과 아우는 모두 떠났지만 여전히 저는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저는 이러한 큰 규모의 가격 사이클은 언제나 있어 왔고 또 언젠가는 원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면 언젠가 그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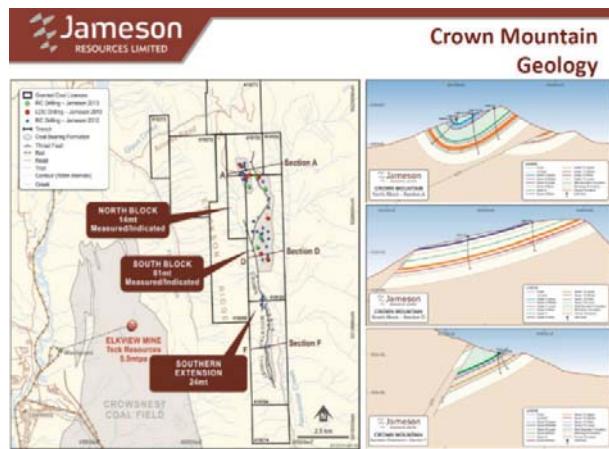
### 4 / 자원개발에 관심있는 후배들에게: 불비불명(不飛不鳴)

“새 한 마리가 언덕에 앉아 있는데,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이 새가 어떤 새이겠습니까?” 그러자 장왕이 말했습니다.

“그 새는 3년을 날지 않았으나 한번 날면 하늘을 뚫고 솟아오를 것이요, 3년을 울지 않았으나 한번 울면 천하를 뒤흔들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불비불명 [不飛不鳴]

지금은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경제 및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해서)로 많은 기업에서 자원개발 인력을 많이 뽑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철광석 가격 사이클에서 보듯이 과거에 그랬듯이 수년 내에 자원개발 붐이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비불명이란 고사처럼 그때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개발에 관심있는 후배들이라면 우선 기본적인 지질학 과목들을 충실히 학습하시고 영어와 기본적인 상



업 관련 공부도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위의 자료는 저희에게 투자를 제안한 한 캐나다 석탄회사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공개자료라서 보여드려도 문제없습니다). 학부 때 배우는 지질학이 영어로 쓰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고 지질 전공자들이 투자해도 좋은 광산인지를 회사 경영층이나 속칭 ‘전주’(투자자)들에게 의견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질학을 충실히 학습한 전공자들만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석탄광산 투자 업무를 하면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목마름으로 다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처럼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언제나 진리인,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대로 기회될 때, 시간 될 때, 체력이 받쳐줄 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에는 저 포함 여러분들의 선배들 몇몇이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중 자원개발 업무는 2명(한 명은 서울, 한 명은 호주에 있습니다), 원료 구매와 예산 업무에 각 1명, 회사 인사노무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사노무 업무는 왜 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갈고 닦는 중인 불비불명 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꼭 그 기회를 잡아야 하니까요.

### 5 / 글을 맺으며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shot.) 제가 좋아하는 찰리 채플린의 명언입니다. 돌아보면 20대 순간 순간에는 저도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 돌아보면 대부분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네요. 여러분들도 모두 건승하시고 아름답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서 없는 제 글이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12학번 백조현 동문

## 1 / 간단한 약력과 더불어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시스템과학과 12학번 백조현입니다. 저는 휴학 1년에 초과학기까지 다니느라 올해 8월에 조금 늦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연극 · 축구 · 춤 등아리를 해오며 노는 게 제일 좋았던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다니 신기하네요. 태생이 이과라 말은 정말 못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간단한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8년 12월 외고, 과고 입시 탈락
- 2012년 3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입학
- 2017년 7월~2018년 8월, 휴학
- 2017년 9월~2019년 6월, 지질유체역학연구실 학부연구생
- 2019년 1학기, 초과학기(취업준비)
- 2019년 6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사
- 2019년 8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졸업

2 / 백조현 동문님이 근무하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어떤 곳이며 맡으신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KETEP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써, 국가 에너지R&D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평가본부에 소속된 저는 그 중에서 에너지수요관리사업에서 일부 연구과제의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3 / 대학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대학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면, 동아리생활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이연극회랑 축구동아리를 주로 했었는데 이때 공연도 하고 축구대회에도 나가면서 선배, 친구들이랑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았어요.

2학년 때부터는 주로 종양스트릿댄스동아리 HARIE 생활을 했는데, 함께 무대를 만들고 배틀에 나가면서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쌓았어요. 직장인이 된 지금도 OB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춤 추고 놀면서 살고 있어요. 직장인이 되어서도 언제 또 해보겠나는 생각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공연에 참여했지요! 이제는 7살까지 차이 나는 신입 기수 친구들에게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4 / 선배님 회사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마도 서류심사는 요건만 맞추면 적합으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필기 전형이 첫 관문일 것입니다. NCS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 이렇게 세 개로 나뉠 텐데, 인성 평가는 개인마다 달라서 조언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NCS와 직무수행 능력평가에 대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NCS는 문제집을 사셔서 몇 번 풀어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로 사기업만 준비했기 때문에 인적성 공부를 미리 해두었는데 상대적으로 NCS가 조금 더 쉬웠어요!(보기 가 하나 없더라구요.)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는 에너지 · 전기 · 발

전 · 전력 관련 문제들과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물리 · 화학 · 수학 문제들이 나옵니다. 전기, 전력 부분은 사실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에너지 · 발전 등등에서 점수를 잘 획득하여 만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의 면접이 있는데, 에너지 관련 정책들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이차전지, 풍력 등등)에 대해서 공부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5 / 후배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사실 취업은 운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소서 담당자와 면접자의 성향, 자소서가 읽히는 순서, 당일 컨디션, 최근 이슈 등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취업준비를 열심히 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고 전형에서 떨어졌을 때,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걸 보면 난 애초에 글러먹은 사람 일거야'식의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다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조차 취업하는 것을

보면 긍정적인 사고와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바심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1년을 휴학했던 제가 첫 취업준비기를 실패하고 두번째 도전 만에 겨우 딱 하나 운 좋게 취업했는데 취업 동기 중에서 가장 어린 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 조바심 너무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구요!

# 지구시스템과학과 동문장학기금 안내

“지구시스템과학과 동문장학기금”은 동문들의 참여 하에  
우리 과 재학생들의 장학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 동문장학기금 계좌  
우리은행 26593917618600  
(지구시스템과학과 동문장학기금)**

지구시스템과학과 재학생들을 위한 공식 장학기금계좌

장학금 기부 시에는 공식적 기부금 내역서(영수증) 제공

장학금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소액 기부 가능

기부 참여를 원하시는 동문은 위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시거나  
지구시스템과학과 학과사무실(tel.2123-2665) 또는,  
지구시스템과학과 학과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장 한원식, tel.2123-2668, e-mail: hanw@yonsei.ac.kr)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